

왜 일본경제는 제조업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나요?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편중된 정책은 서비스화가 진행 중인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엔고 억제 개입을 피해야 할 것임

1. 이미 시작된 일본경제의 서비스화

- 과거 일본경제의 비교우위를 지탱해 주었던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미 일본경제는 서비스화로의 산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GDP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제조업의 1.27배, 취업자 수는 2.14배에 달함(2010년 기준)
 -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저 출산 고령화와 에너지 환경문제 등과 같은 일본경제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산업을 배출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
 - 육아서비스와 간병서비스의 다양화, 예방의료 확충, 선진적인 의료기술 확립,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서비스, 전자정부, 관광산업 진흥, 지역사회 활성화 등 성장이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는 결코 적지 않음
-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충분한 경제자원(사람, 물건, 돈) 투입과 시장 확대임

- 그러나 서비스산업 자체가 안고 있는 고유의 문제(과당경쟁과 규제 등)도 존재하고, 지금까지 일본경제를 대표했던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편중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했을 가능성도 있음

2.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 일본에서 제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확대 등으로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경영전략을 추진한 기업이 많았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그것은 특히 젊은 계층의 소득수준 저하와 임금격차 확대,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내수를 감소시켰을 가능성도 있음
- 앞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노동규제 강화가 내수 환기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같은 의미에서 에너지 환경규제 강화 역시 제조업에 대해서는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규제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임
- 셋째 엔고가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낮추고 산업공동화를 가속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입단가가 줄어 일본국내의 실질구매력을 높임으로써 내수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음
- 실제 ‘손익분기환율(일본 제조업의 경상이익이 0이 되는 엔·달러 환율)을 계산해 보면 항상 실제 환율보다 엔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엔고의 악영향이 크지만 반면 수입원자재와 수입제품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의도적으로 엔저를 추진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 경제 전체를 감안하면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내수에 의존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셈이 됨
- 분명 제조업과 수출은 일본경제의 중요한 성장기반이지만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편중된 정책을 지속하면 서비스산업과 내수 성장을 저해하고 오히려 산업공동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